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호남 민주화 보답하는 정치할 것”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선 손학규 상임고문은 1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호남이 배제된 것은 결정적 잘못”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사조빌딩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우리 정치가 광주·전남의 민주화 헌신에 보답을 하는 정치를 하고, 소외 받는 정치에서 이젠 누릴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손 고문은 인하대·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등 화려한 경력이 말하듯 경륜이 묻어나는 답변을 했고 중도개혁에 대한 소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인터뷰는 손 고문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경선 출마 배경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없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야권통합의 경험이 있고, 통합의 정치를 계속 추구해 오고, 중도개혁의 정치를 지향해왔던 제가 나서서 바른미래당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결심했다.

-다른 당에서 정동영·이해찬 의원이 나서면서 ‘올드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올드보이인 건 맞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난국을 운영해 가며 당내 통합을 하고 정계개편의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있게 하려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만 갖고 해낼 수는 없다.

-지방선거 패배하고 지지율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른미래당이 통합할 때 국민의당이 껌데기만 들어섰고, 또 바른정당도 영남의 국회의원도 돌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남과 호남의 통합이다. 진보와 보수의 통합이라는 가치가 가는 다량계라도 남아있어서 이 실낱같은 희망을 보고 찾는 국민이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책은.

▲우선 분열이다. 통합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가치 자체가 없어진다. 둘째는 개혁이다. 역지로 통합하다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이제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인적 구성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이뤄내서 중도개혁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이 눈길을 주실 것이다.

-정계개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모습은.

▲큰 목표는 중도개혁의 마당을 확실히 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밀어내고 우리가 우뚝서는 것이다. 한국당은 적폐정산의 대상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전대가 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이 새롭게 틀을 만들어서 중도개혁 위치를 분명히 할 때, 한쪽에는 민주당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중심축을 이루고 그 양 옆에 정의당과 궐통보수를 찍어서는 식의 정계개편으로 전체적인 정치 모양을 바꿔내야 한다.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이 전혀 안 뜨는데 이유는 뭘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호남세력을 배제한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가치는 소중하다.



국민·바른정당 통합 호남 배제 잘못

선거제도·정치제도 개혁 위해 출마

호남세력 복원이 당 선결 과제

‘안심’ 없혀 당대표 할 생각 없다

당 통합·정계개편 해낼 사람 필요

바른미래 이젠 중도개혁으로 가야

여하튼 호남세력이 없는 야당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과제가 호남세력을 어떻게 복원하는가다.

-‘안심’ 논란으로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손학규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있다. 제가 안심에 얽혀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사람이겠나.

-손학규의 정치적 미래는.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를 생각하며 정치를 해왔다. 싸움의 정치보다 통합의 정치, 좌우 양극단의 정치보다는 중도개혁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겪어왔던 경험과 쌓아온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 마지막을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다.

-강진에서 2년 동안 집거하는 등 광주·전남에 특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전남은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광주·전남의 어려움과 정서를 온몸으로 느꼈다. 풍부한 인심을 보았고, 풍요한 물산과 자연환경을 볼 수 있었다. 이젠 광주·전남도 4차산업혁명 시기, 환경 중심의 시대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경제·문화·정치에서 중심에 서는 사회가 돼야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치 판매 수익금 횡령 김치사업단장 수사 의뢰

광주시 감사위, 보조금 타용도 사용 증빙서류 허위 첨부 적발

광주시가 김치 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첨부하는 등 비위가 적발된 사단법인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5일 사단법인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광주시 생명농업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7 광주 김치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치 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후 실적보고서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또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사용내용과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명백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8건 18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감사 결과를 생명농업과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단장은 광주김치축제, 서울 ‘김장대전’, 나주 ‘한마음장터’ 등에 참여해 3건 1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판매 대금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도 누락하는 등 수익금 횡령혐의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지인들과 함께 ‘배추재배 농가·김치업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인들과 임의의 행사를 한 후 사업 보

조금(200만원)으로 경비를 집행하는 등 4건에 모두 700만원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지역농가 계약재배 지원비’를 김장대전 행사비로 임의 집행, ‘국내식품박람회 참가비’를 지역원로 등 초청 행사비로 집행, ‘국내판촉 행사비’를 중앙부처 관계자 선물용 김치 제공비로 집행 등 애초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광주김치축제 기간에 주한 외국인 대사 가족 등 240명을 대상으로 김치바우림 체험행사 초청 행사를 하고 1인당(10kg) 5만원 상당의 김치를 제공했으나 초청자 명단도 없고 인원수를 알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7건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곡성 죽곡면 봉정마을 대나무 뗏목만들기 체험.

“순천 거차뺨배 타고 곡성 봉정마을서 마지막 여름휴가를”

전남도 뭍놀이하기 좋은 곳 선정

전남도는 막바지 여름휴가때 뭍놀이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순천 거차뺨배마을과 곡성 봉정마을을 2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농촌마을은 도심이나 물놀이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없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 별량면에 있는 거차마을은 뺨배타기, 갯고동 개기, 칠게 잡기, 쟁뚝어 잡기 등 다양한 갯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뺨배체험은 어린이들이 조개를 캐기 위해 이용하는 ‘넙’을 체험용으로 제작해 한쪽 무릎을 꿇고 뺨배에 앉아 다 른쪽 다리로 갯벌을 밟고 나가 미끄러 지듯 질주하면서 칠게·조개 등을 캔다. 거차마을 갯벌에는 칠게와 쟁뚝어, 갯고 동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보

고 만지며 잡아볼 수 있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이색체험 기회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갯벌체험은 10월까지 운영된다. 바다 바로 앞에서 캠핑도 즐기고, 직접 잡은 칠게 튀김을 맛볼 수 있으며, 인근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낙안읍성 등을 둘러볼 수도 있다.

곡성 죽곡면 봉정마을은 대나무 뗏목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체험은 대나무를 이용해 뗏목을 직접 뚝뚝뚝 딱 만들고 직접 타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화합을 다지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또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맛있고 건강한 시골밥상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 고 고두밥을 얹히는 옛날 방식으로 만든

전통쌀엿이 유명하다. 엿가락 사이사이에 공기 구멍이 많아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치아에 달라붙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봉정쌀엿을 맛볼 수 있다.

거차마을 뺨배체험은 성인 1만3000원, 학생 1만원이며, 봉정마을 대나무 뗏목 만들기 체험은 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방문하기 전 해당마을에 사전 예약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운영 홈페이지(순천 거차뺨배마을 www.geocha.co.kr, 곡성 봉정마을 www.baksago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